



다큐멘터리 사진작가

박하선의 **사진풍경**

어머님의 고무신



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

자식, 며느리 왔다고
텃밭에서 일손을 멈추고 들어오신 어머님
흰 고무신 두 짝
문지방에 벗어 놓으셨다

고무신 안에는 흙들이 눌러 있어
아직도 따뜻하다
땀과 바람
하루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뻐 채였다

그 흙은 단지 밭의 것이 아니다
굴곡진 삶과 말 없는 인내가
고스란히 밟히고 스며든 시간이다

흙 묻은 고무신은
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듯하지만
어머님의 하루는 쌓여온 삶을 두고
이제 멈춰 서 있다